

*삶의 총만함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Matthew Kelly, *The Four Signs of a Dynamic Catholic*, 143-145)? “슈퍼 히어로들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합니다”; 노래작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배고픔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은 COVID-19과 모든 질병을 제거할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인간의 행동때문에 다시 찾아올 것이고, 질병이 없다면 인간의 나쁜 행동은 여전히 고통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을 내부로 부터 변화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분의 평화를 가졌다면,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 평화를 파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다면, 100년 동안 지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삶의 총만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화가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런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십계명을 따랐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역순으로 나아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질투(9번째,10번째), 거짓말(8번째), 도둑질(7번째), 간통(6번째), 살인(5번째)를 없애고, 만약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했고 (4번째),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존중했고 (인간적 수준으로라도, 사람들이 더 쉬고 지혜로워진다면)(4번째), 그런 다음 하느님의 이름을 경외하였고(2번째),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다면(첫번째), 세상은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는 계명보다 더 나은, 삶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열망은 바오로 성인의 제 2 독서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9:16).

- 바오로 성인은 전도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왜 일까요? 첫째, 만약 우리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그의 충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이 책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2코린5:14).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성인의 한 편지에서, 그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야 한다면, 그는 심지어 그마저도 할 것이라고 과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샅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9:18). 그는 편지의 앞부분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쳤지만, 그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1코린9:6-7,12-14). 그래서 그의 보상은 돈이 아니라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큰 보상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 고백성사를 하는 동안, 저는 때때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하루의 남은 시간을 보내라는 보속을 주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내일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씁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9:22-23). 바오로 성인은 스스로를 맞춥니다: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들처럼 먹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그들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 어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여러분이 저녁을 같이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인 요리를 대접하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어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려 깊은 것인지를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맞추고 있구나! 그것이 복음화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삶의 여정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리 할머니가 우리를 먹일 때처럼 그들을 그분께 억지로 끌고가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실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도로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활 이후 우리는 알파를 다시 진행할 것이니, 사랑하는

3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6-7,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5th Sunday

사람들을 고려해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바로 성인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은총을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복음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현실입니다! 1995년 요한 바오로 2세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뜻의 회칙 서간 *Evangelium vitae* 을 썼고,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에 있다”(1).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무엇을 선포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삶으로.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무엇을 축하하나요? 새로운 아이의 삶. 예수님 또한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10:10). 하시며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삶에 충만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인간의 육체적 삶의 신성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삶,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 며칠 전 우리는 그라운드호그 데이를 보냈는데, 한번은 가브리엘라 수녀님이 빌 머레이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를 보라고 권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입니다! “그래, 맞아,”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녀가 옳았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과 믿음 순위 25위 신성한

코미디(<https://www.patheos.com/blogs/goodletters/2014/02/the-arts-and-faith-top-25-divine-comedies/>)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머레이의 캐릭터인 필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거만함으로 시작합니다. 영화의 전제는 그가 몇년동안 같은 날을 반복하며 꿈쩍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같은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그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파티를 하고, 도둑질 하는 것으로 하루를 써 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는 아름답고 자상한 동료인 리타를 사랑합니다. 그는 그를 유혹하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4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6-7,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5th Sunday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리타에게 도움을 청하고 스스로 겸손해 집니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며 밤을 지새우고, 리타는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필은 그녀가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고 말합니다.
- 바로 다음날, 그는 동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독서를 시작하고,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자신을 발전 시키는데, 매우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항상 무시했던 노숙자에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 노숙자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7NjNOAncIII>).
- 필은 만나는 모든 사람, 즉 남자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 나이든 여자들을 돕는 일 등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가 완전히 사심이 없습니다. 그때 리타가 그와 사랑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요. 그를 둘러싼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의 사랑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찬양할 때, 우리는 희생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생활, 관계, 낙태, 안락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결정의 근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은 하루나 내일 하루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노력만이라도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침, 오후, 저녁과 같이 하루 일부분만이라도 시도해 본다면 어떨까요?

- 이번이 ‘삶을 위한 40일’을 시작하기 마지막 두주 전인데, 저는 오늘 아침 COVID-19로 인해 올해는 이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자세한 것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한 생명을 얻어서 더 큰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원한다면, 2월 16일 화요일에 시작하는 Faith Studies에 등록하십시오.

5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6-7,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5th Sunday

이 사람은 베티 네이비입니다. 그녀가 줄리안 팀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20대 젊은 과부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관계나 상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베티는 낙태를 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약속 장소에 갔을 때, 순서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꿔 아기를 갖기로 결심하고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편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베티는 저의 할머니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 그녀의 사심없는 사랑의 행위가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 하신다면,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 세상을 돕는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 찬미 예수님

2월 6/7일 저스틴 신부님의 강론이었습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모두 기도중 낙태종식에 대해 한번쯤 묵상해 보시고, 원하시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오직 하느님 한 분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하소서.

6

Father Justin Huang
Saturday-Sunday, February 6-7, 2021
4:30 p.m., 10 a.m.

St. Anthony of Padua's

Eucharistic Prayer: ; Ordinary Time, Year B, 5th Sunday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당신의 은총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잘못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태아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낙태의 위험 앞에 놓인 모든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낙태의 유혹에 빠진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물리치고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태아들의 수호자이신 과달루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순교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